

## 부산항 신항 개장식 축사

존경하는 부산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신항 개장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합니다. 참으로 장관입니다. 앞으로 장장 10km에 걸쳐 펼쳐질 신항의 모습을 상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벅칩니다.

이곳 신항은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민자사업 협상을 타결 짓고 기공식을 가졌던 항만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쁩니다.

그동안 밤낮없이 땀 흘려 온 항만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항 개장을 손꼽아 기다려 오신 부산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올 연말에 3선석이 추가로 준공되고, 2008년까지 18선석, 2011년까지 30선석을 모두 갖추게 되면 신항은 그야말로 동북아 해운물류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329만 평에 이르는 배후부지와 연결교통망도 차질 없이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물류와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또한 신항의 가치를 더욱 높여 줄 것입니다.

저는 5년 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끝에 당초 24선석이던 신항 규모를 30선석으로 늘렸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지금 하나하나 현실로 실현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 해운선사들이 새로운 기항지로 신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2단계 부두 민자사업자 선정에서는 55개 업체 5개 컨소시엄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고 들었습니다.

신항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정부도 확실하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항만이 조기에 활성화되고, 나아가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써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 임기 동안 굳건한 토대를 다져 놓도록 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중국 항만의 급성장에 대해 불안해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신항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입지도 좋고 항만의 지원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운영의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항만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항만에 계신 여러분은 무과업 선언으로 고객의 신뢰를 높여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노·사·정이 노무인력 공급체계 개편에 합의하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간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결단과 노력이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할 것입니다.

부산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

신항 시대의 개막은 부산항이 새롭게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컨테이너 처리 기능이 상당부분 신항으로 옮겨지면, 부산북항은 관광·레저·비즈니스 공간 까지 고루 갖춘 그야말로 부산의 새로운 얼굴이 될 것입니다. 우선 부산시민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것이고, 또한 이 지역의 내륙을 만환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은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시민 여러분의 삶의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거제, 통영, 광양, 목포에 이르는 남해안 벨트는 새로운 번영의 축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곳 신항은 부산·경남의 밝은 미래, 나아가 선진한국을 여는 희망의 진원지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성공시킵시다. 동북아 물류 허브의 꿈을 함께 실현합시다.

다시 한번 신항 개장을 축하드리며, 새해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